올해 하수관거 BTL사업 이달부터 본격화

1조1천579억 원 규모…16개 지자체서 1천617㎞ 정비

총 연장 1천617㎞, 총 사업비 1조1천579억 원 규모의 올해 하수관거 BTL사업이 이달 중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. 올해 하수관거 BTL사업의 특징은 기본계획 용역 기간이 예년보다 50일 가량 늘어난 5개월로 확정됨에 따라 과연 기본계획 물량이 실제 사업물량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또한 하수관거 BTL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어 작년 중반까지 이어진 건설업계의 참여 열기가 올해도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

▲올해 하수관거 BTL사업이 16개 지자체에서 연장 1천617㎞, 사업비 1조1천579억 원 규모로 이달부터 시행된다. 사진은 강화군 강화읍 지역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모습.

올해 하수관거 BTL사업은 전체 16개 지자체에서 연장 1천617㎞, 사업비 1조1천579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. 이 중 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시행하는 사업은 연장 635㎞, 사업비 4천733억 원 규모로 홍성군 연장 95㎞ 총 사업비 578억 원 △진안군 60㎞ 330억 원 △여수시 56㎞ 517억 원 △경주시 97㎞ 524억 원 △김해시 76㎞ 518억 원 △양산시 57㎞ 487억 원 △진주시 124㎞ 848억 원 △통영시 70㎞ 931억원 등이다.

이 중 진안군, 여수시, 김해시, 통영시 사업은 위·수탁 협약 체결부터 공사관리 감독까지 모두 시행하는 일괄위탁사업이며, 나머지 홍성군, 경주시, 양산시, 진주시 사업은 위·수탁협약 체결부터 실시설계 승인·고시까지 시행하는 부분위탁사업이다.

이와 함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△인천시 81㎞ 834억원 △대전시122㎞ 1,063억원 △광주시 86㎞ 996억 원 △울주군196㎞ 1천145억 원 △김포시 126㎞ 667억 원 △천안시 110㎞ 579억 원 △제주 동(洞)지역 95㎞ 650억 원 △제주 읍·면 166㎞ 912억 원 등이다.

환경관리공단과 각 지자체는 2월부터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. 공단이 기본계획용역을 5개월로 늘림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도 공단 기준을 준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 용역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수관거 BTL사업은 모두 8~9월에 집중 고시될 전망이다.

여기에 고시부터 제안서 접수까지 90~120일 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가려지는 시기는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